

# 서울시, 어르신돌봄에 154억 투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총 154억1000만원을 투입해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이케어 센터'를 지원한다.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를 늘려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데이케어센터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어르신들을 보호하며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등 재가급여(노인 장기 요양보훈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먼저 시는 공공성을 확보한 데이

## 자치구 등 데이케어센터 신설 33억7천만원 지원 양질 요양 서비스 제공 늘려 고령친화도시 구현

케어센터 확충 사업에 올해 총 33억 7000만원을 투입한다. 공공건물을 활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병설 등으로 데이케어센터를 새롭게 설치하는 자치구·법인에 대해 사업적 정성 검토를 거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자치구 또는 노인복지사업을 정관 목적 사업으로 하고 기본재산 요건을 갖춘 법인이 대상이다. 설치

비·차량 구입비·장비 구입비 등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비 지원을 받은 시설은 관할 자치구와의 협약을 통해 최소 5년 이상 사업을 성실히 운영해야 한다. 또 반드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받아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 등 비영리단체는 관할 자치구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치구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시에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사업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시는 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한다. 이들 시설에 대해 주·야간 운영비, 환경개선키,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해 올해 총 120억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5대 영역 총 36개 항목에 이르는 인증지표를 적용받아 적격 판정 후 서울시로부터 공인인증을 획득한 돌봄서비스 기관을 말한다. 법인과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신청, 심사를 거쳐 서울형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에는 총 391개 데이케어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192개(49%)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운영되는 시설은 공인인증을 통해 실질적·잠재적 수요자인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매년 평균 6000만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다.

김영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서울시는 데이케어센터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확대를 위해 공공성을 확보한 시설확충에 더욱 힘쓰겠다"며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자치구·법인을 지원하고 우수 시설에 대한 서울형 인증제도를 확산, 어르신과 가족 모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무 심기 딱 좋은 날. 원만한 봄날씨를 보인 17일 서울 종로구 종로꽃시장에서 각종 묘목이 판매되고 있다.

## 서울시,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확대 시행

### 15층 이하 연면적 3만㎡ 이내 건물 대상·상시 접수

서울시는 민간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소규모 노후건축물(30년 이상 10층 이하, 연면적 1000㎡이하)에서 15층 이하, 연면적 30000㎡미만 민간건축물로 전면 확대된다. 다만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정기점검 관리중인 건축물은 제외하고 인의관리대상 건축물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법의관리대상 건축물이란 시설 불안정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이 아닌 건물을 말한다.

점검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무료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점검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신청 건축물 중 오래된 건물(사용승인 연도 기준) 등에 대해 먼저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으로 실시한다.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 등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한다.

안전점검 후에는 단계별 안전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부여하고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 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취약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정밀점검 등의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해 지속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확대 시행으로 일상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신속 대응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울시, 여성 관리자 비율 23.1%...전국 지자체 1위

서울시는 지난해 5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23.1%로 전국 최고치 수준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치를 5.9%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지난해 서울시 목표율은 21.9%였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신규채용자(공개경쟁채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치구를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연 평균 1.8% 증가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에서 304명의 영정사진을 서울시청 서고로 옮기는 '이안식'이 진행되고 있다. 분향소 자리에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이 조성돼 다음 달 12일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 "잊지 않을게"...세월호 영정 고단했던 천막 생활 마쳤다

### 오늘 분향소 철거 앞두고 이안식...설치 1797일 만

2014년부터 설치된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 내 희생자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이 17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고 현 분향소 자리에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조성해 다음달 12일 공개할 예정이다.

17일 세월호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현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 내에 존치된 희생자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을 진행했다. 18일 예정된 세월호 천막 철거에 앞서 영정을 이동하는 것이다.

2014년 7월 세월호 천막이 처음 설치된 이후 약 4년8개월 만, 입수로는 1797일 만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노란색 패딩, 자켓 등을 입고 시간에 맞춰 이곳을 찾았다. 이안식을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곳곳에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이안식은 묵념을 시작으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순으로 진행되는 종교의식, 진혼(鎭魂)식 등으로 진행됐다.

불교에서는 명진스님이, 기독교에서는 홍요한 목사, 천주교에서는 서영섭 신부가 나와 종교의식을 이행했다. 이후 이어진 진혼식에서는 박태균 416연대 공동대표와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나와 추모 낭독 등을 진행했다.

장 위원장은 "우리는 이곳에서 단식을 했고 삭발을 했고 불대포와 싸웠다. 이곳에서 함께 싸워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하다"면서

"사랑한다 아들 딸들아, 우리를 잊지 않은 분들에게 인사하고 떠나자"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영정 이안식은 사회자가 고인의 이름을 호명하면 유가족이 한명씩 나와 영정사진을 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답답하게 영정사진을 받는 유가족도 있었지만 일부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영정 사진을 받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한쪽에 준비된 흰색 테이블로 이동해 영정사진을 흰색 손수건으로 한 번 닦은 뒤 준비된 검은색 상자 안에 영정 사진을 넣었다.

약 300개의 영정은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서고에 임시 보관된다. 유가족들은 영정을 어디로 옮길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철거 후 새롭게 조성되는 세월호 추모 공간인 '기억·안전 전시공간'은 현 분향소 위치에 목조형태의 면적 79.08㎡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추모 공간에 대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고, 동시에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공간과 콘텐츠는 세월호 기억·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과 시민참여형 전시공간으로 구성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의 모습을 '그날의 기억·기억을 담은 오늘·내일의 약속'이라는 주제의 메시지로 전달한다.

지역공공·미래창조·정보혁신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